

강정호 품은 키움은 대체 어떤 마무리를 기대하나

키움, 프로야구 개막 보름 앞두고 강정호와 전격 계약

2년 전에도 복귀 추진하다 무산...올시즌 경기 출전 못해

언뜻봐도 득표단 실이 많다. 그래도 키움 히어로즈는 강정호(35)에게 유니폼을 못 입혀 안달이다. 내놓는 해명도 이해할 수 없진 마찬가지다.

2022시즌 프로야구 개막을 보름여 앞두고 키움은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라는 '돌발행동'으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키움은 18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곧장 강정호와 키움을 향한 반대 여론이 쏟아졌다.

그렇지만도 하다. KBO리그를 주름잡고, 미국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했던 강정호는 세 차례 음주운전 이력으로 야구계에서 사실상 '퇴출'된 인물이다.

강정호는 2016년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고, 운전차 바퀴치기까지 시도했다. 조사과정에서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실도 들들났다.

이로 인해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해 2017시

즌을 통째로 날린 강정호는 2018시즌 막판 빅리그에 복귀했지만 부진 끝에 2019년 8월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방출됐다.

미아가 된 강정호는 2020년에도 자신의 보류권을 갖고 있는 키움과 손잡고 KBO리그 복귀를 타진했다.

그러나 기대만큼 실망이 컸던 팬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뜻을 접었다. 당시 강정호는 자신의 SNS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도, 히어로즈에서 야구를 하고 싶었던 마음도 모두 저의 큰 욕심이었다"고 적었다.

2년 전에는 강정호가 구애를 보았다면 이번엔 키움의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강정호의 거취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던 2020년과는 달리 이번엔 야에 2022시즌 선수 계약까지 먼저 맺고,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건 강정호를 품은 키움의 기대하는 것이다. 분명 '연는 것이 있

으니 강정호 복귀를 결정했을 텐데, 아무리 들여다 봐도 이를 예상하기가 어렵다.

키움은 강정호와 계약했다고 해서 당장 이번 시즌 전력에 보탬이 되는 건 아니다. 강정호는 음주운전으로 KBO 상벌위원회로부터 1년 유기실격,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받았다.

1년 유기실격 징계는 KBO가 임의해제 복귀 승인을 공식하는 순간부터 발효되는 만큼 강정호는 올 시즌 KBO리그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선수단 훈련 참가도 금지된다.

강정호가 실제 그라운드에서 설 수 있는 건 2023시즌부터다. 한때 리그 최고 유격수로 꼽혔던 강정호이지만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37살이 된다. 꾸준히 경기를 뛰어난 베테랑들도 '황혼'에 접어들며 기량저하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시기다.

더욱이 강정호는 2019시즌 중 피츠버그에서 방출된 후 실전경기를 제대로 뛰지 못했다. 실전 공백만 3년 이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강정호가 내년 키움에 합류한다 한들 엄청난 전력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단 얘기다.

여기에 강정호 복귀를 추진하면서 구단은 엄청난 비난과 맞서게 됐다. 히어로즈라는 구단 이름도 무색할 지경이다.



국내 프로야구 KBO리그 복귀를 추진중인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지난 2020년 6월 23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삼진아웃'과 등과 관련 사과하고 있다.

고형욱 키움 단장은 "40년 넘게 야구인으로 살아온 선배 야구인으로서 강정호에게 야구선수로서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영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이다. 키움과 강정호가 바라는 '마무리'가 어떤 장면인지는

모르겠으나, 야구로 보답하는 시대는 이미 끝난지 오래다.

술한 사태를 겪으면서도 이를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외면했다면 야구계를 기만한 것이다.

뉴스스

“우물쭈물 하지말고 자신있게 하라” 캡틴의 조언, 잠자던 군필 거포 장타력 깨웠다

KIA 김석환, 칭찬·조언 힘입어 장타 기근 해소할 적임자로 떠올라



거포 기대주 김석환(23·KIA)이 타이거즈의 장타 기근을 해소할 적임자로 떠오르고 있다. 주변의 칭찬과 진심 어린 조언에 힘입어 자신감을 확실히 찾은 모습이다.

김석환은 지난 17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2 KBO 시범경기 KT와의 원정경기에서 5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볼넷 맹타로 팀의 시범경기 3연승을 견인했다.

2회 첫 타석은 삼진이었지만 4회 선두로 나와 2루타를 터트렸다. 바뀐 투수 류희운의 초구 직구(139km)를 받아쳐 최근 4경기 연속 안타에 성공했다. 이후 6회 베테랑 전유수의 포크볼에 속지 않으며 볼넷을 골라냈고, 3-2로 근소하게 앞선 8회 선두로 등장해 쉼터 솔로포를 쏘아 올렸다. 1B-2S 불리한 카운트에서 좌완 심재민의 높은 직구(140km)를 공략해 마수결이 홈런으로 연결했다.

경기 후 만난 김석환은 “자신감이 커졌다. 코치님, 선배님들이 ‘타석에서 좋은 스윙, 좋은 능력을 갖고 있으니 하고 싶은 대로 자신 있게 하라’는 조언을 해주신 덕분이다. 매 타석 자신감을 갖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니 결과가 좋게 나온다. 여유도 생겼다”고 맹타 비결을 설명했다.

특히 주장 김선빈의 조언이 자신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 김석환은 “김선빈 선배가 조언을 가장 많이 해주신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자신 있게 하라는 말이 와 닿았다”며 “덕분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팀 어린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같다. 기량도 더 좋아졌다”고 감사를 표했다.

김석환은 광주동성고를 나와 2017 KIA 2차 3라운드 24순위로 입단한 6년차 선수다. 그러나 1군 성적은 6경기 타율 2할3푼8리(21타수 5안타) 1홈런 3타점이 전부다. 아마추어 시절 매서운 타구를 날리며 좌타 중장거리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지만 좀처럼 잠재력을 터트리지 못했다. 2019년 10월 현역병으로 입대하며 잠시 커리어가 단절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스프링캠프부터 김 감독 감독의 신임을 얻으며 스윙에 자신감이 붙었고, 이는 시범경기 4경기 타율 6할(10타수 6안타) 1홈런 5타점의 인상적인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의 흐름이라면 무주공산인 타이거즈 좌익수는 그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석환은 “과거에는 힘만 세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정교함까지 갖췄다는 말을 듣고 싶다”라며 “강점인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 선 컨택이 돼야 한다. 컨택이 잘 되면 힘을 안들이고도 좋은 타구를 만들 수 있다. 홈런보다 좋은 타구를 만들고 싶다”고 마음가짐을 설명했다.

좌익수 자리에 대한 욕심이 드러났다. 김석환은 “감독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고 싶은 욕심이 크다. 꼭 잡고 싶다”며 “결국은 자신감이다.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하니 결과가 좋게 나온다. 내가 할 수 있는 장점을 계속 보여드리면 충분히 잘 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석환은 출전 기회를 늘리기 위해 1루 수비도 함께 연습하고 있다. 데뷔 첫 1루수 훈련이지만 다행히 빠르게 새 위치에 적응했다. 김석환은 “1루는 데뷔 후 처음 훈련을 해봤다. 아무래도 시야가 의외로 가까워서 타구 적응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졌다. 수비가 많이 늘었다”고 흡족해했다.

김석환의 다음 미션은 지금의 감을 정규시즌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결국 시범경기는 연습이고, 실전은 정규시즌이기 때문이다. 김석환은 “군대를 다녀온 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즌이라 마음가짐이 남다르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지금의 매커니즘을 개막전까지 유지하고 싶다. 올해 원지 관장을 것 같다”는 기본 좋은 예감을 전했다

이슬비기자

배드민턴 안세영, 세계랭킹 1위 잡고 전영오픈 결승 진출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20·삼성생명·랭킹 4위)이 세계 랭킹 1위이자 지난해 2020 도쿄올림픽 단식 은메달리스트 타이쯔잉(대만)을 따돌리고 전영오픈 결승에 올랐다.

안세영은 20일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2022 전영오픈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타이쯔잉에 세트스코어 2-0(21-19 21-13)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1세트에서 타이쯔잉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친 안세영은 2세트에서 수월한 운영으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안세영은 역대 한국 선수 네 번째로 전영오픈 여자 단식 우승에 도전한다. 앞서 1981년 황선애, 1986년 김연자, 1996년 방수현이 이 대회 여자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 상대는 세계랭킹 2위 아마구치 아카네(일본)다. 역대 10차례 맞붙어 4승6패로 근소하게 뒤진다.

한편, 여자 복식의 정나은(화순순정)-김혜정(삼성생명)은 준결승에서 일본의 마쓰야마 나미-시다 치하루에 0-2(8-21 12-21)로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K리그2 전남 드래곤즈, 부산 꺾고 3연승

2위로 경중...이랜드, 첫 목동 경기에서 충남아산과 비겨



지난해 대한축구협회(FIFA)컵 우승팀 전남 드래곤즈가 3연승을 달리며 K리그2(2부) 2위로

경중 뛰어올랐다. 전남은 19일 부산아시아드경기장에서 열

린 부산 아이파크와 하나원큐 K리그2 2022 6라운드에서 손호준, 플라나의 연속골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3연승을 달린 전남(3승 1무2패 승점 10)은 2위로 올라섰다. 한 경기씩 덜 치른 선두 FC안양, 3위 부천FC와 승점이 같지만 다득점 순에 따라 순위가 정해졌다. 안양이 7골, 전남이 6골, 부천이 5골이다. 개막 후 2연패로 주춤했던

전남은 이후 4경기에서 3승1무로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부산(2무4패 승점 2)은 마수결이 승리를 신고하는데 실패했다. 11개 구단 중 10위에 머물렀다.

전반 15분 손호준의 선제골로 주도권을 잡은 전남은 1-0으로 앞서며 맞은 후반 들어서도 기세를 올렸다. 후반 22분 플라나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부산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빠른 역습으로 전개해 골맛을 봤다.

서울 이랜드FC는 충남아산과 0-0으로 비겼다. 이랜드는 지난해까지 홈구장으로 사용했던 잠실종합운동장을 떠나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첫 경기를 치렀지만 승점 1 획득에 만족했다.

이랜드(2승2무1패 승점 8)는 5위에 자리했고, 충남아산(1승3무1패 승점 6)은 8위에 위치했다. 동부씨재본부김승호기자



이상호, 한국 최초 스노보드 월드컵 시즌 종합우승 차지

이상호(27·하이원)가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시즌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상호는 19일(현지시간) 독일 베르히테스가덴에서 열린 2021-2022시즌 FIS 월드컵 스노보드 알파인 남자 평행 회전 3·4위 결정전에서 루카스 마티스(오스트리아)를 0.14초 차이로 따돌리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대회 성적까지 보태 랭킹포인트 604점을 기록한 이상호는 시즌 월드컵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평행회전 포인트 245점, 평행대회전 포인트 359점이다. 이번 시즌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한국 선수로는 역대 처음이다. 2위 슈테판 바우마이스터(독일·506점)를 따돌렸다.

이상호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평행 대회전 은메달을 목에 건 한국 스노보드의 살아있는 역사다. 지난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8강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이상호는 대한스키협회를 통해 “올 시즌 종합 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돼 매우 기쁘다”며 “모든 종목에서 우승을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다”고 했다.

류현진, 캠프 합류 후 첫 라이브피칭...실전 임박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스프링캠프 합류 후 처음으로 라이브 피칭을 했다.

MLB닷컴의 토론토 구단 담당 키건 매티슨 기자는 20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류현진이 오늘 라이브 피칭을 했다”고 전했다.

2021시즌을 마친 뒤 지난해 10월 초 귀국한 류현진은 이달 14일에야 미국으로 출국했고, 16일 토론토 스프링캠프가 열리는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에 도착했다. 다른 때보다 출국 시기가 늦었다. 2013년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한 후 류현진은 1월말 또는 2월 초 미국으로 떠나 개인 훈련을 하다가 2월 중순부터 팀의 스프링캠프에 합류했다.

올해에는 MLB가 노사단체협약(CBA) 개정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직장폐쇄에 들어가 스프링캠프와 개막 일정 정해지지 않았다.